

1/29/22

설교 제목: 사역을 다 이루신 예수님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요한복음 19 장 17-42 절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마 27:32-44; 막 15:21-32; 눅 23:26-43)

- (요 19:17)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절관주** 눅 23:33
- (요 19:18)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절관주** 눅 23:32
- (요 19:19)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절관주** 마 27:37, 막 15:26, 눅 23:38
- (요 19:20)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 (요 19:21)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 (요 19:22)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 (요 19:23)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 (요 19:24)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절관주** 시 22:18
- (요 19:25)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 (요 19:26)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 (요 19:27)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 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영혼이 떠나가시다(마 27:45-56; 막 15:33-41; 눅 23:44-49)

- (요 19:28)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절관주** 시 69:21
- (요 19:29)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절관주** 마 27:48, 막 15:36

(요 19:30)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다

(요 19:31)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절관주** 신 21:23, 출 12:16

(요 19:32)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요 19:33)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요 19:34)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절관주** 1 요 5:6, 1 요 5:8

(요 19:35)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요 19:36)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요 19:37)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절관주** 속 12:10

새 무덤에 예수를 두다(마 27:57-61; 막 15:42-47; 눅 23:50-56)

(요 19:38)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요 19:39)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백 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요 19:40)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요 19:41)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절관주** 마 27:60, 눅 23:53

(요 19:42)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절관주** 사 53:9

예수님은 겐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에게 잡히신 후 밤새도록 전 대제사장 안나스, 현 대제사장 가야바, 분봉 왕 헤롯 앞에 끌려 다니며 심문을 받으시다가 마침내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서셨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자신의 입으로 "이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놓고도 무리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치자 군병들로 하여금 예수를 채찍질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무리들이 예수의 피투성이가 된 모습을 보고 동정하여 잠잠할 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고 폭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한 빌라도는 예수에게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그리하여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사형수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고 처형 장소인 골고다를 향해 가셨고 그곳에서 다른 두 죄수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요 19:17) 그들이 예수를 맡으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요 19:18)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가운데 예수님이 달리시고, 다른 두 사람은 그 좌우편에 달렸습니다.

마가는 이 두 사람을 강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 15:27)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강도와 같은 수준의 죄인으로 취급한 것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을 이렇게 취급하다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진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 53:12)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빌라도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패를 써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요 19:19)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요 19:20)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요 19:21)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요 19:22)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비록 빌라도가 예수님과 유대인들을 조롱할 의도로 그렇게 써 붙였을 지라도 히브리어는 선민 유대인의 언어이고, 로마어는 로마 정부의 공식 언어이고, 헬라어는 당시 세계의 공용어였으므로 결국 세계 만민에게 예수가 왕이시고 구세주이신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 아래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요 19:23)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요 19:24)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당시 유대인들은 보통 신발, 터번, 허리띠, 속옷, 겹옷 이렇게 다섯 가지를 입었습니다.

예수님도 아마 이렇게 입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명의 로마 군병들이 신발, 터번, 허리 띠, 겹옷을 하나씩 나누고 나머지 통으로 짠 속옷은 제비를 뽑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데 그 밑에서 이 같은 짓을 하다니 어처구니가 없습시다만 이것 역시 성경에 예언되어진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 22:17)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시 22:18) 내 겹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모친과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요한이 십자가 형장까지 따라가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다.

(요 19:25)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요 19:26)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요 19:27)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 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어머니를 보더니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십니다.

당신없이 세상에 남겨질 모친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침 9 시경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 시경에 구세주로서의 대속 사역을 마치고 운명하셨습니다.

(요 19:28)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요 19:29)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요 19:30)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땀과 피를 흘리기 때문에 탈수 현상을 겪게 되고 따라서 몹시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심한 갈증을 느끼셨고 그리하여 “내가 목마르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여 예수님 입에 가져다 대었고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 또한 성경의 예언된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 69:21)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그것도 유월절 후 무교절이 시작되는 큰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요 19:31)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빨리 시체를 치우려고 한 이유는 안식일이 시작되지 전에 죄수들을 십자가에서 내려 장사하라고 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였습니다.

(신 21:22)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므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신 21:23)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나

군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두 강도들의 다리를 꺾고,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신지라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요 19:32)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요 19:33)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요 19:34)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요 19:35)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나

(요 19:36)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요 19:37)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아직 숨이 붙어 있을 경우 십자가에서 내려 장사하기 위해서 쇠파시로 때려 다리를 꺾어 그 충격으로 죽게 하거나 죽지 않더라도 도망을 칠 수 없게 하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죄수들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신 군병 중 하나가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고 곧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운명하신 지 한참 시간이 지나서 피가 물과 혈장으로 분리된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성경 예언된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 34:19)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 34:20)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여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리마대 요셉이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허락을 받고 예수님 시체를 가져다가 니고데모와 함께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 장사하고 새무덤에 두었습니다.

(요 19:38)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요 19:39)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백 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요 19:40)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더라

(요 19:41)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요 19:42)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는 평소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자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나와 담대하게 예수님의 장사를 치룹니다.

니고데모 역시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도 평소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것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백 리트라쯤 가지고 와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골고다 처형장에서 가까운 동산에 있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두었습니다.

이것도 성경에 예언된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 53:9)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든 일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남은 성경 예언들도 모두 예언된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어느 사람들의 죽음과는 달리 특별한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 죽을 수 밖에 없는 인류에게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지어 그 죄값으로 죽을 수 밖에 없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을 당해야 할 하등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수송아지나 수양 또는 수염소 등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죄를 지은 자신 대신 그것을 피흘려 죽게 함으로써 죄를 속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일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되어서 짐승을 제물로 바쳐서 드린 속죄 제사는 불완전하여 사람의 죄를 한 번에 완전히 없앨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땅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속죄 제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속죄 제사는 단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없애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의 자격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흠 없고 죄 없는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기 때문에 단 한 번에 우리를 위한 완전한 속죄를 이룬 것입니다.

(히 9:11)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히 9:12)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 9:13)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히 9:14)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 9:15)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는 구약 시대처럼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을 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하여졌기 때문입니다.

(롬 8: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롬 8: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막 15:37)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막 15:38)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휘장은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휘장 넘어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지성소 안에는 일 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희생 제물들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모든 사람에게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 죄 값으로 죽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늘의 법정에서 의롭다 판정을 받고 칭의를 입게 되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대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몰랐든지 아니면 알았어도 믿지 않았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받아 들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 들이지 않아 죽게 된다면 예수님은 왜 이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난을 겪어 가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입니까?

1.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헛되지 않도록 합시다.